

■ 주요 뉴스: 미국 12월 소비자신뢰 등 주요 경제지표,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 가능성을 시사

- 오미크론 관련 임상연구, 중증 악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이르면 2022년 말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 일본은행,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종료는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제성장 지속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0%],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오미크론 우려 완화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및 산업주 강세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12월 소비자신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
유로화가는 0.4%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경제회복 전망 등으로 1개월래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187.5원, -4.6원) 0.4% 하락, 한국 CDS 하락

		12/22일	12/21일	전일대비			12/22일	12/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96.6	4,649.2	1.02%	국채 금리 10y	미국	1.45%	1.46%	-1bp
	유럽	478.36	473.99	0.92%		독일	-0.29%	-0.31%	2bp
	중국	3,622.6	3,625.1	-0.07%	CDS 5y	한국	21bp	22bp	-1bp
	일본	28,562	28,518	0.16%		중국	42bp	43bp	-1bp
	한국	2,984.5	2,975.0	0.32%	위험 지표	EMBI+	-	400	-
환율	달러지수	96.08	96.49	-0.43%		VIX	18.63	21.01	-11.33%
	유로화	1.1326	1.1285	0.36%		WTI유	72.76	71.12	2.31%
	엔화	114.10	114.10	0.00%	원자재	구리	438.5	433.8	1.08%
	위안화	6.3699	6.3721	0.03%		금	1,803.7	1,789.3	0.80%
	원화	1,192.0	1,192.9	0.0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소비자신뢰 등 주요 경제지표, 양호한 경제성장 지속 가능성을 시사

-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115.8로 전월(111.9) 및 예상치(111.0) 상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이 주요 배경. Navy Federal Credit Union의 Robert Frick은 향후 소비지출이 지속 증가하여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
- 11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비 1.9% 늘어난 연환산 646만채. 증가율은 금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저금리, 가계저축 증가, 양호한 고용회복 등이 원인. 시장에서는 신규 매물이 출회되어도 수요가 이를 원활하게 흡수할 것으로 전망
- 또한 3/4분기 성장률(확정치)은 전기비연율 2.3%로 수정치(2.1%) 상회. 하지만 이번 결과는 2/4분기(6.7%) 대비 둔화된 것으로, 공급 차질과 서비스 수요 부진 등이 원인. 또한 허리케인 이다로 인한 일부 에너지 설비 파괴 등도 경제성장을 저해
- 하지만 Oxford Economics의 Oren Klachkin은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전까지 국민들의 건강이 양호했고, 고용과 가계지출도 긍정적 흐름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4/4분기 성장률은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오미크론 관련 임상연구, 중증 악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남아프리카, 영국, 덴마크 등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70~80% 낮은 것으로 확인. 이에 오미크론이 감염력은 강하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은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될 전망

■ 미국 백악관,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하여 맨친 상원의원과 협상을 지속

- 사키 대변인은 맨친 의원과 지난 수개월 동안 상호 신뢰 가운데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와 같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이자 코로나 19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 이번에 승인을 받은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중증 위험이 높은 감염자가 복용할 수 있으며, 사용은 이르면 금주 말부터 가능할 전망. FDA의 Patrizia Cavazzoni는 이번 승인이 전세계 팬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이르면 2022년 말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홀츠먼 총재는 ECB가 내년 3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내년 말 혹은 2023년 초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발언. 그 시기는 연준의 3번째 금리인상과 겹칠 수 있다고 지적
- ECB 라가르드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되어 2023~24년에는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또한 필요 시 인플레이션 관련 추가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
- ECB 슈나벨 이사도 역내 물가가 당분간 추가 상승할 수도 있으나 내년에는 결국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다만 그 시기와 하락폭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부연

■ 영국 3/4분기 성장률(확정치), 전기비 1.1% 기록하며 수정치(1.3%) 하회

- 이번 결과는 2/4분기(5.4%) 대비 크게 둔화되었으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과 제조업 부진 등에 기인. Capital Economics의 Bethany Beckett는 내년 초에도 봉쇄 조치 등으로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가 가능

- NDRC의 Ning 지제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 또한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부연

■ 일본은행,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종료는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

-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특별 경기부양책을 종료할 경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출 및 생산의 부진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37, 10월(0.76),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2/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 내구재 수주, 1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 신규주택판매,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적 시스템 도입이 요구 - Financial Times

(US Treasury market needs to enter modern age)

- 미국 국채시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 부분임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 이에 작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변동성 충격 등 다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 첫째, 투명성의 핵심 원천인 강력한 정보공개가 필요. 이를 통한 투자자 대처 능력 향상은 시장위험 감소와 회복력 증대로 연결. 둘째, 모든 채권거래소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유도과 관리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
- 셋째, 전자거래 증가에 따른 기술적 오류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요구.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중앙 청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위험 축소가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충격,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 - 블룸버그

(Supply Chain Experts Say Buckle Up For Another Bumpy Year)

-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백신과 경제봉쇄 해제 등으로 올해 공급망 충격 완화를 예상하였으나 운송비 급등 등으로 공급 병목은 여전한 상황. 내년에도 양호한 내구재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 차질 해소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
- 일각에서는 내년에 소비의 중심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공급망 충격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Flexport의 Chris Rogers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급 병목 완화에 수개월이 소요되기에 공급망 위기의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전망

■ 영란은행, 양적긴축 시기 등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블룸버그

(For BOE's Quantitative Tightening Plan, More Surprises Beckon)

■ 중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 장려, 소비둔화규제강화 등으로 해외투자는 오히려 감소 - WSJ

(China's Tech-Investment Paradox)

■ 터키 정부, 향후 통화가치 보존을 위한 공격적 개입이 예상 - Financial Times

(Turkey's tumbling foreign assets hint at 'aggressive' lira interven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